

하나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God's Purpose for One Church) (아모스 3:1~8)

“Can two walk together, except they be agreed?” (Amos 3:3, KJV)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또 하나의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는 이 시간,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들을 정돈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더불어 일치와 사랑, 그리고 합심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는 도전을 허락 하시고, 힘이 필요한 곳에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스도 및 성도 간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과 목적, 그리고 평화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앞선 세대들이 간절히 기도했으나 보지 못했던 은혜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주신 그 선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지붕 아래 모인 것도,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아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교 모임이나 가족 재회 때 찬양대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Walk Together Children”이라는 찬송인데, 작곡가는 미상(Unknown)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 후, 꼭 찾아가 만나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이 '미상의 작곡가'입니다. 가사는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 절이 세 번씩 반복됩니다.

Walk (Sing / Pray / Work) together, children, don't you get weary,
Walk (Sing / Pray / Work) together, children, don't you get weary,
Walk (Sing / Pray / Work) together, children, don't you get weary,
there's a great camp meeting in the promised land.

아모스 선지자는 분열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번영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순종과 겸손, 정의와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중 하나를 던집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함께 무언가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비전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저 길을 걷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교회의 통합은 위원회나 법률가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서로를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두 개의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마일 동안 그 강들은 서로 다른 길을 흐릅니다. 각 강은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들을 띄웠으며, 다른 들판에 물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강들은 하나로 만납니다. 그리고 일단 만나고 나면... 그 누구도 그 물줄기를 다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물줄기를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어느 물줄기가 더 세었는지 다투라고 모으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더 강력한 강물이 되게 하시려고 모으신 것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의(Agreement)는 동일함(Sameness)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됨(Unity)’과 ‘획일성(Uniformity)’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가대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소프라노만 부르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화음이란, 서로 다 목소리가 하나의 노래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전통, 각자 좋아하는 찬송, 서로 다른 생각들... 그러나 한 분이신 구주, 하나의 복음,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갈라지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갈라진 채로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이유는, 이 지역 사회에 더 강력한 하나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상실의 아픔(Grief)’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래를 축하하는 동시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뻐하지만, 변화된 것들에 마음 아파합니다. 일부 전통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했던 루틴이 달라졌습니다. 정들었던 이들의 모습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극히 당연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나간 날을 기억하는 것’과 ‘어제에 갇혀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는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하나 됨’을 볼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 사람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다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을 연습하면서 화해를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 평화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됨이 곧 전도입니다. 사랑이 곧 아웃리치(외적 사역)입니다. 용서가 곧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들어설 때 즉시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야모스 3:8).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백성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공유하는 관계에 머물
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나누겠습니까? 서로를 그저 참아주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
니면 진정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가족도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서
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그
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프리카 마을에는 '나뭇가지 뭉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
집니다. 두 개는 조금 더 견딥니다. 하지만 열 개가 묶이면 부러뜨리기 힘들어집니다.
한 더미로 묶인 나뭇가지 뭉치는 결코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고립된 그리스도
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 된 교회입니다. 마귀는 분리
된 사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
하며, 함께 서 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했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
으며, 많은 희생을 치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지금 다시 분열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하라고 모으신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고 모으셨
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
습니다. 목적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치
유를 갈망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선호도보다 큼니
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추억보다 위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함께 걸어갑시다! 누군가 기뻐할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 누
군가 울 때... 우리 모두 함께 읊시다. 누군가 섬길 때... 우리 모두 함께 섬깁시다. 누
군가 승리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
니다.

오늘, 저는 모든 성도님들을 언약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단순히 교회와의 언약이 아닌,
서로를 향한 언약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다는 언약, 불평하기 전에 먼저
격려하겠다는 언약, 신속하게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넉넉하게 환영하겠다는 언약,
신실하게 섬기며,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다는 언약,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사명, 하나의 미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이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be to God). 아멘!